

6% 공공재 인상 여파 하반기 물가 패닉

韓銀·통계청 전망

다음달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를 경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에 이르러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7.5% 이후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하반기에 정부가 기존 안대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2%, 가정용 가스요금을 30% 가량 올리면 연간 소비자물가는 약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러한 상승률은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를 산출할 때 생필품에 각각 부여하는 가중치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다. 전기료의 가중치는 19로, 52개 생필품 중 5위이며 도시가스료는 16.1로 6위이다. 한은은 이달 초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2%, 연간 전체로는 4.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는 공공요금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연간 전망치는 5%대 이르게 되고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6%까지 올라간다. 이경태 한은 총재도 지난 10일 기자간

담회에서 "공공요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 두 가지인데, 동결을 전제로 하반기 물가전망을 봤다"며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실제 물가가 전망치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구성 항목은 아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9%대,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50% 가량 인상될 전망이어서 기업에 요구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스·전기요금 이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와 택시 요금까지 인상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공급업체들은 원유(가공전 유유) 납품 기본 가격인상에 따라 유류 소비자 가격을 8월 중 15~20% 가량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물가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6%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지금처럼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공공요금 인상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물가 악순환을 막아라”

경제연구원장들 지적... 유가 안정돼도 물가 상승 지속 가능성

경제연구원 원장들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오름세가 멈추더라도 물가 상승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정책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오전 이경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7월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연구원 원장과 대학교수 등은 비용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기대심리→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하반기에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하반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내

서 안정될 것"이라면서 "하반기 국제유가 수준은 한은이 예상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이 하반기에는 진정될 수 있다"면서 "미국 경기와 유럽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 쪽에서도 비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의 상반기 생산실적은 저조했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허리케인이 다시 발생하거나 이란의 핵 문제가 가시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유가 상승세는 지금보다 꺾일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 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합뉴스

급락 해외펀드 환매 움직임

中·브릭스·동유럽 등 20~30% 손실

증권사 창구 확대... 국내 재투자 해설

해외펀드 손실이 크게 늘어나면서 펀드환매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증시 부진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펀드 손실이 급증한 탓에 일선 증권사 창구에는 펀드를 환매하려는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펀드에 가입한 일부 투자자들은 환매 의욕마저 상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중국과 브릭스, 동유럽, 중남미 등지의 펀드들을 중심으로 환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환매 규모는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증권업계의 반응이다. 환매가 이뤄지는 펀드들은 대부분 손실률이 20~30%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펀드의 경우 손실률이

40~45%에 달해 상당수 투자자들이 환매하려는 업무조차 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은 증시를 완전히 떠나기 보다는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금을 다시 집어넣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상당수 해외펀드 환매는 추가 손실을 줄이고 국내 펀드에 재투자해 손실을 만회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증권 박환기 청담지점 부점장은 "봉주르차이나나펀드의 경우 작년 11월 고점 대비 40~45% 손실이 발생해 자금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해 봐도 손실을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

환매 움직임이 없는 상태. 만약 증시가 반등한다면 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부점장은 "하지만 펀드환(대규모 환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펀드 환매는 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선언자원 펀드, 원자재펀드 등의 경우 이익 실현 차원에서 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하루 20억~30억원 정도 펀드환매가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어느정도 이익이 난 상품 관련 펀드이며 손실이 큰 펀드는 투자자들이 환매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지속하자 증권사 일선 지점 창구에는 저가매수와 환매를 문의하는 전화가 동시에 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100P 상승 "오랜만이다" 코스피지수가 1주일만에 100p 이상 상승하며 1,600p에 육박한 23일 오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전일보다 30.53p(1.96%) 상승한 1,591.76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상반기 LPG 공급 가격 작년비 두배 가까이 뛰어

프로판가스 kg당 361원 올라

수입가격 상승과 교환율의 여파로 올 상반기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LPG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프로판가스는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와 난방용으로, 부탄가스는 택시 등의 운송용 연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3일 업계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1~5월 LPG업체들이 총천소와 판매소에 공급한 프로판가스 평균가격은 kg당 1천101.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739.9원에 비해 48.8%(kg당 361원) 올랐다. 또 부탄가스의 경우도 올 1~5월 평균 공급가격은 kg당 859.7원으로 작년 동기의 kg당 672.1원에 견줘 27.9%(kg당 182.5원) 상승했다. 여기에 SK가스, E1 등 LPG공급업체들이 올 6월과 7월에 연이어 LPG공급가격을 크게 올린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LPG가격인상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LPG공급가격이 오르면 유류 가스업체는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가스업계로서는 LPG수입가격이 오르면 원가상승분을 반영해 국내 LPG공급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LPG수입가격은 거의 매달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9월 재산세 인하 추진

'세금폭탄' 서민경제 부담

한나라당은 오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최경환 수석정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세가 전국 평균 18.7%, 서울은 무려 28%나 올랐다"면서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 내지만 전·월세로 사는 서민도 재산세가 오르면 세가 증가해 중산서민 층이 직접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계적인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

다"면서 "지난 정부가 세금폭탄을 터뜨렸는데 (지금 터지는) 시한폭탄을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 인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더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는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표적용률의 동결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기로 했다. /연합뉴스

소비 양극화 심화 불황에도 백화점 매출 급증

물가 상승 등 전반적인 경기 불안 요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 백화점 7곳과 이마트 점포 114곳의 올해 상반기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 백화점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9% 성장했다. 이마트는 예년 수준에 못 미치는 7% 성장에 그쳤다. 특히 백화점 명품 매출은 지난 3~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 가량 늘었으며 5월에는 매출 증가율이 38%, 6월 46%로 갈수록 높아졌다. 이마트에서는 일반 제조업체 상품보다 저렴한 자체브랜드 상품 'PL' 매출이 크게 늘어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PL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2월 11.3%에서 3월 16.6%, 4월~5월 19.5%, 6월 19.7%, 7월(22일까지) 20.0%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석유류 제품 소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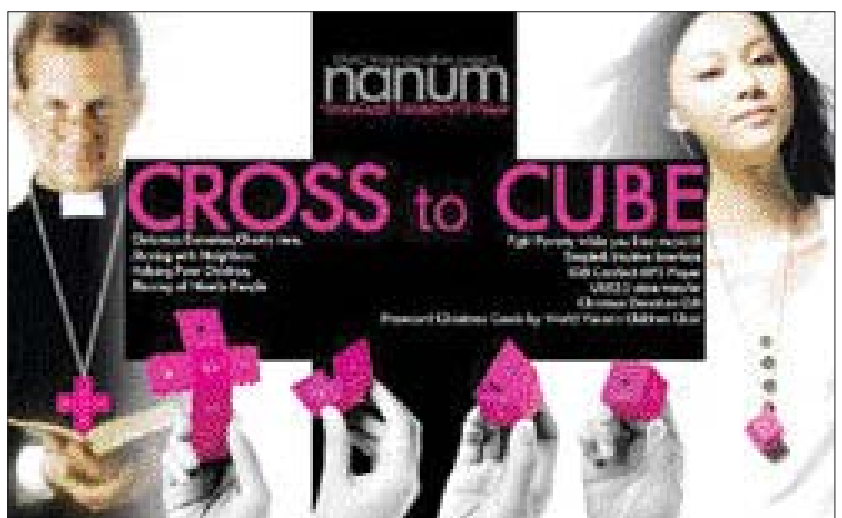
고유가 탓 벙커C유 등 3.9% 줄어... 휘발유는 증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3억9천427만배럴로 지난해 상반기의 3억9천983만배럴에 비해 3.9% 줄었으며 석유화학연료용으로 사용되는 나프타를 제외하면 2억2천885만배럴로 작년 상반기 대비 6.0% 줄었다. 6월의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5천745만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 줄었으며 이중 나프타를 제외한 소비는 3천212만배럴로 13.9% 급감했다. 상반기 제품별 소비 증감률(작년 동기 대비)을 벙커C유(-26.4%)와 경유(-6.9%), 항공유(-6.1%), 나프타(-0.6%) 등은 감소했으며 휘발유(0.2%)와 등유(12.5%), LPG(5.8%) 등은 증가했다. 경유 소비는 국내 가격 급등과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6월 경유 소비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8% 급감했다. 등유 소비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경유 가격이 상반기에 34.4% 치솟자 불법으로 등유를 경유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불경기속 술 소비 늘어

상반기 소주 5.8%·맥주 4.4% ↑

올 상반기 소주, 맥주, 위스키 소비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대한주류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소주, 맥주, 위스키 판매량 집계 결과 작년 동기 대비 소주는 5.8%, 맥주는 4.4%, 위스키는 5.5% 증가했다. 소주의 경우 국내 소주업체 10개사의 판매량이 5천791만8천상자(360ml 30병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475만1천상자에 비해 5.8% 늘었다. 업체별로는 진로가 2천955만7천상자를 판매해 작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무산은 647만2천상자를 판매해 작년 대비 6.4% 늘었다. 맥주는 9천3만2천8천상자(500ml 20병)가 팔려 작년 동기 8천625만4천상자에 비해 4.4% 늘었다. 위스키는 판매량이 152만553상자(500ml 18병)로, 작년 동기 144만1천410상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세계 디자인 공모 은상 'MP3나눔(Nanum)' KAIST(총장 서남표)는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팀이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인 'IDEA 2008'에서 'MP3나눔(Nanum)'이라는 제품의 디자인으로 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교수팀이 출품한 이 제품은 점으면 정육면체로, 펼치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는 휴대용 MP3로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과 GS칼텍스가 후원하고 배 교수팀이 디자인을 기부해 제작한 자선 기획 상품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HRN	[SK텔레콤]네트워크 본부 사무지원 여사무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24	062-529-2671
ING생명(본사)	저축성상품(주기연계/연금)고객상담원-월평35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6	02-3452-2612
에이치오엔 미니골드	[신규모집]신세계관광점 주얼리코디네이터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7/28	02-2082-6882
추원문고	경리업무 및 도서의 입고고 담당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29	062-573-7007
헤어컷도	헤어컷도 미용실 디자이너/스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361-2295
주지케이네트웍스	통신기술 신입 및 경력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1544-9504
해성산업개발	관리 및 경리사무업무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7/31	062-374-6311
엔컴정보통신	대한주력공사 광주현장 현장대리인 경력사원	고졸/경력5년	회사내규	07/31	032-667-4800
한국인포데이터	KT고객센터(100)일반상담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230-1603
에스엠일렉트로닉스	삼성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부품 조립 및 검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956-9973
(재)우정복지협회	광주지산동우체국 금융창구경비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31	02-3706-1183
주광주과학	거래처 영업/납품/관리업무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7/31	011-640-9338
삼화물류개발	건축현장내 전기공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951-962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커플당 결혼비용 평균 1억8천만원

올해 상반기 결혼한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이 한 쌍당 1억8천만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월간 '마이웨딩'이 창간 기념호(8월호) 출간을 맞아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및 7~8월 결혼을 앞둔 커플 500쌍을 대상으로 주력자금, 결혼식비, 예단·예물비 등 총 결혼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플당 평균 1억8천67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주력자금이 1억3천404만원(71.8%)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은 ▲결혼식 1천247만원(6.7%) ▲예단 985만원(5.3%), 현물예단 740만원, 현물예단 245만원 ▲예물 852만원(4.6%) ▲신혼여행 456만원(2.4%) ▲웨딩드레스·화장·앨범·청첩장 345만원(1.8%) 순이었다. /연합뉴스